

국별 리포트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7



I. 일반개황

면적	924천 km ²	G D P	1,963억 달러 (2010년)
인구	152.2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1,289 달러 (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Naira (N)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150.3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1억 5,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2010년 말 기준 372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와 5.3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9위)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2003년 이후 고유가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은 큰 편이나,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1년 4월 대선에서 당선된 조나단 대통령이 7월에 내각 구성을 완료 하면서 대선 직후의 극심한 정치 불안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과격 이슬람 단체의 폭탄테러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은 심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 아프리카 제1위의 산유국으로서, 석유산업이 GDP의 30%,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산유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1970년 이후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석유부문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농업은 GDP의 40%, 노동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08년까지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 농업, 금융서비스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 내수 증대,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7%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산유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석유부문의 호조로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9년에는 OPEC의 원유감산 결정과 국제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농업, 통신업 등의 호조로 7%의 성장률을 시현하였고,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부문의 회복과 농업, 서비스업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세 지속으로 8.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2.7%에 그치고 사하라 이남 원유수출국가의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1년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통신·건설·금융업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세가 이어져 7%에 가까운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2011년에 흑자전환 전망

- 재정수지는 원유 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흑·적자 여부와 폭이 결정되고 있음.
- 2008년까지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연평균 6%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이후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이 위축된 반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과 2010년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GDP 대비 적자 폭이 각각 10.2%, 8.5%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 2011년 4월 대선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는 큰 폭의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및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상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2010년에는 식료품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7%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제 성 장 률	7.0	6.0	7.0	8.7	6.9
재 정 수 지 / GDP	0.5	4.8	-10.2	-8.5	0.4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5.4	11.6	12.5	13.7	10.6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석유산업이 각각 GDP의 40%, 3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구조가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특히 수송인프라와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
 -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로, 철도 등 수송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급증하는 운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내륙 운송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발전설비 노후화로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고, 인구의 50~60%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계도 디젤발전기에 의존하는 실정임.
- 2010년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전체 169개국 중 142위에 그쳤으며, 보건, 교육 등 사회 환경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나. 성장 잠재력

□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0년 말 매장량 기준으로 372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 세계 점유율 2.7%)와 5.3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9위, 아프리카 1위, 2.8%)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개발의 중심국가임.
- 원유 매장량은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이나, 원유 생산량은 246만 b/d로 아프리카 1위임. 리비아는 2010년 기준 원유매장량 464억 배럴(세계 점유율 3.4%)로 산유량 166만 b/d를 기록함.

-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최고급으로 분류되는 저유황 경질유(API* 지수 37~45)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생산량의 약 절반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API 비중은 원유의 비중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API 비중이 33도 이상은 경질(輕質)유, 30~32도는 중질(中質)유, 30도 미만은 중질(重質)유로 분류되고 API 비중이 높을수록 정제비용이 적게 들어 고급유로 간주됨.

- 원유의 약 90%가 남부의 니제르 델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주로 셰브론, 엑손모빌, 토탈 등 석유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개발·생산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2010년 190억 m³에서 2015년에는 이보다 58% 증가한 300억 m³로 예상되는 등 향후 LNG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제2위 LNG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1999년 9월, 보니섬(Bonny Island)에 38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최초의 LNG 생산시설이 완공된 이후 2008년에 6번째 생산시설이 완공되면서 연간 292억 m³에 달하는 LNG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건설 중인 7번째 LNG 생산시설(연간 생산능력이 116억 m³)이 2012년에 완공되면 나이지리아는 카타르에 이은 세계 제2위의 LNG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 풍부한 내수시장 보유

- 나이지리아는 2010년 기준 인구가 1억 5,220만 명(아프리카 전체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 보유국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제8위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이 2010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2억 8,900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제5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나이지리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10년에 2.3%이었으며, 향후에도 2%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최근의 고성장으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증대가 나이지리아의 성장잠재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부는 4월의 대선을 앞두고 2011년 3월에 최저임금을 종전 월 7,500나이라(5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만 8,000나이라(120달러)로 대폭 인상하였음. 또한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이 2011년 20%, 2012년 10%로 예정되어 있어 구매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통신업, 금융업 등 비석유산업의 성장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중산층의 확대는 내수증대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됨.

□ 브릭스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신흥투자시장

- 골드만삭스는 2005년에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브릭스에 이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국가로서 나이지리아 등 11개국을 선정하였음.
- 이들 소위 넥스트-11(Next-11)에는 터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한국이 포함됨.
-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0년에 향후 10년 간 주목해야 할 국가들로서 인구증가율이 높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이지리아 등 6개 신흥시장을 언급함.
- 이들 소위 마빈스(MAVINS)는 멕시코(Mexico), 호주(Australia),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으로 구성됨.

□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전망

- 2011년 6월에 모건스탠리는 국제유가 상승,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나이지리아가 2025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월하여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음.
- 나이지리아는 2011년 8.4%, 2012년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여 2016년에는 GDP가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반면, 현재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1년과 2012년에 경제성장률이 각각 3.6%, 3.9%를 기록하고 2016년에는 GDP가 5,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다. 정책성과

□ 전력 공급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나, 고질적인 전력난 지속

-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량 확대를 추진하여 왔음.
 - 화력·수력·가스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정부의 전력공급능력 확충 노력에 힘입어 2004년 2,500MW에서 2010년 3,300MW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4,300MW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2010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은 135kWh로 주변국 가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질적인 전력난은 지속되고 있음.

□ 높은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정부는 2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업률은 점점 상승 추세에 있음.
- 2009년 말 기준 실업률은 19.7%를 기록했으나, 2010년 3월에는 21.1%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취업자도 60%가 농업에 편중되어 있어 비농업 부문에 숙련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 원유 및 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2005년 이후 원유가격 상승으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에 82억 달러, 2009년에는 87억 달러로 급증하여 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 나이지리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86~90년에 연평균 7.2억 달러에서 1991~95년에는 연평균 12.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1998~2001년에는 연평균 10억 달러에 머물렀음. 2002~05년에는 연평균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데다 정정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축소된 61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앙골라(99억 달러), 이집트(64억 달러), 리비아(38억 달러)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4개국 중 하나임.

*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에 자원개발 붐에 힘입어 73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602억 달러, 2010년에는 55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흑자기조

- 석유산업이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품·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상품·경상 수지는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해 왔으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2009년에도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각각 253억 달러와 1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자본재 등 상품수입 증가와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2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1년에는 원유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13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9~10년 간 외환보유액 크게 감소

- 외환보유액은 2008년까지 원유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530억 달러에 달함.
- 그러나 2009~10년에는 나이라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2010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349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황은 양호

- 2000년대 초반에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정부의 채무 재조정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2006년 이후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말 외채잔액은 115억 달러로 World Bank 등으로부터의 외자도입으로 전년 대비 29억 달러 증가하였고, 2009년 말에는 외채 상환 등으로 전년 대비 37억 달러가 감소한 7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9년 이후로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외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DSR도 1% 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라 2007년 9%대에서 최근 11~12%대로 상승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27,643	28,079	13,153	2,476	13,235
경 상 수 지 / G D P	16.6	13.5	7.8	1.3	5.5
상 품 수 지	37,748	45,885	25,342	20,237	35,148
수 출	66,040	85,729	56,121	73,698	103,562
수 입	28,291	39,844	30,779	53,461	68,414
외 환 보 유 액	51,334	53,002	44,763	34,919	37,760
총 외 채 잔 액	8,628	11,509	7,846	9,160	12,065
총 외 채 잔 액 / G D P	5.2	5.5	4.6	4.7	5.0
D S R	1.6	0.6	0.7	0.5	0.4

자료: IMF 및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4월 대선을 전후로 정치불안 심화

- 2011년 대선은 당초 1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선거준비 부족과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2차례 연기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안이 심화되었음.
 - 정부는 선거폭력과 부정선거가 빈번히 발생했던 전례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당초 1월에 실시될 예정이던 대선을 4월 2일로 1차 연기하였음. 그러나 각지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투표 용품이 일부 투표소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4월 16일로 2차 연기되었음.
- * 2011년 3월초에 서북부 니제르 주의 집권 인민민주당 행사장 등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바 있음.
- 대선에서 집권당인 인민민주당(PDP)의 조나단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5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선거 직후 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반발한 폭동이 발생하였음.
 - 선거 과정에서 미성년자 투표, 투표함 빼돌리기 등 50여 건의 부정행위가 신고되었고,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 측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선거 시비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유혈 폭동이 발생하여 800여 명이 사망하고 6만 5,0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당분간 정치불안 지속 전망

- 조나단 대통령이 2011년 7월에 그 동안 지연되어 오던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신임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등 대선 직후의 극심한 혼란이 다소 진정되었음.
- 그러나 인민민주당내 북부 지역 출신들의 불만이 잠재되어 있고 2011년 대선의 휴유증을 극복하는데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정치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민민주당에는 남부와 북부 지역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직을 8년씩 번갈아 맡는다는 묵계가 있는데, 북부 출신 회교도인 야라두아 전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하고 병사함에 따라 차기 대선 후보는 북부 인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2011년 1월 인민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불문율이 깨지고 남부지역 출신의 조나단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대국이나 1인당 GDP가 1,300달러에 불과하고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총 인구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UNDP는 나이지리아가 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극빈층으로 나뉘어 세계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불공평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한바 있음.

□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

- 부정부패는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임.
-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2011년 6월에는 반콜라(Dimeji Bankola) 전 국회의장이 수백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된바 있음.
 - 정치 거물의 체포는 조나단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험무대로 간주되고 있음. 2007년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처벌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는 2.4점으로 178개국 중 134위를 차지하여 전년 130위에 비해 4계단 하락하는 등 최근 부패지수 순위가 하락 추세*에 있음.

* 순위(총점): 2008년 121(2.7), 2009년 130(2.5), 2010년 134(2.4)

□ **종족-종교적인 갈등 지속**

-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북부 이슬람과 남부 기독교로 양분(50:50) 되어 종족·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 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북부와 남부의 교차점에 위치한 플래토(Plateau)주 조스(Jos)에서는 2010년 12월에 무슬림과 기독교 간 유혈 충돌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최근 2년간 총 1천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과격 이슬람단체에 의한 빈번한 테러공격 발생**

-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급진단체 보코 하람(Boko Haram)은 2011년 5월 조나단 대통령의 취임 이후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고 있음.
- 2011년 11월 북동부 2개 주(보르노주, 요베주)에서 150여 명을 숨지게 한 연쇄 폭탄테러, 8월에 수도 아부자(Abuja) 소재 유엔 건물에 대한 차량 폭탄테러, 6월 중순에 아부자의 경찰 본부에 대한 폭탄테러 공격 등 최근 테러공격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주나이지리아 미국 대사관은 아부자 시내 주요 고급호텔들이 향후 보코 하람의 폭탄테러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한 바 있음.
- 보코 하람은 서구식 교육·문화를 최악시하고 이슬람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테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니제르 델타 지역에 대한 치안불안 지속**

- 니제르 델타 지역에 이 나라 원유의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어, 이 지역의 치안안정 여부가 원유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니제르델타해방운동(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MEND) 등 반군 세력은 석유 이권의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생산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원유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왔음.
- 2008년에는 치안 악화로 산유량이 전년보다 8.3% 감소한 217만 b/d에 그쳤음.

-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이 지역 반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최근 원유생산량이 증가하였음.
- 사면 프로그램은 반군이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는 대신 사면과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그러나 지금도 일부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군세력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경우 원유생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우호 관계 지속

- 미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에너지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으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나이지리아는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2010년 기준 나이지리아 수출의 36.1%, 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이지리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수출입은행은 2011년 10월에 나이지리아의 전력산업 투자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차관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함.

□ 중국과의 관계 강화

- 중국은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시노펙(Sinopec) 등이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전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쉘브론, 엑손 모빌, 에니, 토탈 등 서방 석유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음.

- 2011년 9월에 정부는 중국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에 포함시키고 그 비중을 5~10%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발표는 달러, 유로화에 편중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제1위의 수입대상국으로서, 전체 수입액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내 분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 사태에 개입하여 국제적 역할을 공인받았음.
- 원유가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바카시(Bakassi) 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10여 년간 지속된 카메룬과의 영토 분쟁은 UN의 중재 하에 2008년 카메룬에 이 지역을 이양하면서 카메룬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5년에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경험

- 나이지리아는 2005년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통해 2005년에 73억 달러, 2006년에 109억 달러 등 총 182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 외채상환태도 개선 추세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중장기 외채의 연체비율이 2009년 6월말 2.67%에서 2010년 6월말 1.86%, 2011년 6월말 2.3%로 하락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개선 추세에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5등급, S&P B+ 등급 유지

- OECD는 2010년 10월에 개최한 CRE 회의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지표 유지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10월 CRE 회의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였음.
- S&P와 Fitch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각각 B+, BB-로 유지하고 있음. 2011년 10월에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공공부채, 양호한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평가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 (2011.11.)	C3 (2011. 4.)
OECD	5등급 (2011.10.)	5등급 (2010.10)
S&P	B+ (2011. 1.)	B+ (2009. 8.)
Fitch	BB- (2011.10.)	BB- (2010.10.)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으로 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0년 2월 22일 (북한과는 1976년 6월 25일 수교)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2), 해운협정('89), 투자보장협정('98)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위의 교역대상국

- 나이지리아는 남아공에 이어 우리나라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위의 교역대상국으로서, 2010년 교역규모는 약 13.8억 달러에 달함. 수출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를 중심으로 약 8.1억 달러, 수입은 천연가스, LPG를 중심으로 약 5.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제10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총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국 중 제2위 국가

- 2010년 말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 수주액은 76억 달러로 리비아(364억 달러)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수주국 중 제2위 국가임.
- 2008년 6억 달러, 2009년 8억 달러, 2010년 4억 달러, 2011년에 6억 달러를 수주하는 등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향후에도 교통 인프라와 석유화학공장 및 가스 발전소 건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나이지리아 개발사업에 대한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6월 말 현재 29건, 1억 9,194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이며, 투자금액이 1억 4,985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약 78%를 차지하였음.

<표 4> 한·나이지리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 품목
수 출	2,536	817	806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수 입	109	230	572	천연가스, LPG 등
합 계	2,645	1,047	1,378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매장량 세계 10위의 원유와 세계 9위의 천연가스를 보유한 나이지리아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농업, 금융서비스 등 비석유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상품·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2009년과 2010년에 흑자 폭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2011년에는 원유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9~10년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 대비 외채비중과 DSR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2011년 4월 대선 직후에 부정선거 시비, 선거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폭동이 발생하는 등 선거 후유증 해소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정치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열악한 인프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 인종·종교간 갈등, 그리고 과격 이슬람 단체의 테러활동 및 니제르 델타 지역의 치안불안 등이 나이지리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